

2분기 정제마진 하락세 전환 정유업계, 실적개선 더더지나

2분기 정제마진 6.9 달러
휘발유 등 국제유가 하락 영향
업계 “전반적 실적 하락 예상”

1분기 흑자전환을 이뤄냈던 정유업계에 수익성에 다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최근 반등세를 보였던 정제마진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제마진이 지난 1분기 배럴당 12.7달러에서 2분기 6.9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정제해 나온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운영 및 원자재 비용을 뺀 가격이다. 정제마진이 높을수록 정유사가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며 통상 5달러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평가한다.

국제 유가도 1분기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4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며 6월 81.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정유업계의 재고평가 손실로 이어진다. 보통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해 정

제할 때까지 3개월~4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비싸게 산 원유를 싸게 파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유업계는 지난 1분기 정제마진의 강세로 수익성이 대폭 확대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 1분기 매출 18조8551억원, 영업이익 62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1.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6.6% 급증했다. 에쓰오일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5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9% 감소했지만 직전분기 564억원 영업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으로 매출 7조8788억원과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5%, 17.8% 증가했다. GS칼텍스도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조8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1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급증했다.

1분기 수익 청신호가 무색하게 증권사들은 정유사들이 2분기에 실적 하락

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등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매출액은 1분기 9조385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약 4500억원으로 예측된다. SK이노베이션 정유부문의 경우 1분기 5911억원에서 2분기 1725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의 실적 또한 부진일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가격의 지속하락도 정유업계의 수익성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제마진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의 상승세에도 시장 수요 감소로 휘발유 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48.7원으로 직전 주 대비 리터당 6.0원 감소했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경유 마진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제마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유업계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노트북용 탠덤 OLED 양산

기존 OLED 대비 소비전력 40% 저감

LG디스플레이가 성능은 높이고 소비전력은 줄인 탠덤(Tandem)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노트북용 OLED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노트북용 13인치 탠덤 OLED 패널 개발을 완료하고 최근 양산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2019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탠덤 OLED는 레드·그린·블루(RGB) 유기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장수명, 고휘도를 구현해 기존 1개 층인 OLED 패널 대비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나다.

OLED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차량용 OLED에 처음 적용됐으며,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등 화면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IT 제품에도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노트북 패널에 탠덤 OLED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모델이 노트북용 탠덤 OLED 패널을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이는 노트북 사용 환경에 맞춘 탠덤 OLED를 새롭게 개발했다.

노트북용 탠덤 OLED는 기존 OLED 패널 대비 수명은 2배, 밝기는 3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 소비전력은 최대 40% 저감 가능해 일반 노트북뿐 아니라 AI 노트북 등 고성능 IT 기기에도 최적이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13인치 탠덤 OLED 패널은 부품 설계 및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존 노트북용 OLED 대비 약 40% 얇아지고, 28% 가벼워져 날렵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휴대성을 높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다보스포럼 이끈다

세계경제포럼 공동의장 추대
하계 연차총회 기조연설 예정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이 한국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을 이끄는 공동의장에 선정됐다.

LG화학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24 뉴챔피언 연차총회(Annual Meetings of New Champions)에 신학철 부회장이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장을 위한 다음 개척지(Next Frontiers for Growth)’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기업, 정부, 학계 등의 글로벌 리더 1500여명이 참석하여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발전, 경제 성장, 에너지 전환과 진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는 전략 구축, 탄소 중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미래를 위한



행동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 부회장은 보르제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총재의 추대를 받아 ‘뉴챔피언 연차총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한국 기업인이 공동의장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공동의장은 원슈강(Wen Shugang) 중국 화능그룹(Huaneng Group) CEO, 첸이팅(Bonnie Chan Yiting) 홍콩증권거래소(HKEX) CEO,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UN) 사무부총장 등 10여명의 글로벌 리더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산업 에너지 혁명(Industry's Energy Revolution) 세션에서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인 배터리 소재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조 연설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세계경제포럼은 신 부회장을 산업계의 구루(Guru)로서 AI,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세션의 단독 연사로 추대했다. 이 세션에는 유니콘부터 시리즈 A까지의 리더 스타트업 CEO들이 참여해 신 부회장과 기업 경영부터 리더십, 산업 트렌드를 논의한다. 신 부회장은 이 세션에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단독 연사로 추대되었다.

신 부회장은 한국 화학 기업 대표로서 중국 리창(Li Chang)총리와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Sinopec) 등 주요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글로벌 경제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화학첨단 소재 산업 분야부터 AI,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해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등 3대 신성장동력 비즈니스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에쓰오일, 디지털 전환 메가 프로젝트 본격 운영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에쓰오일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작업 현장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에쓰오일은 지능형 공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이달 중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작업자 안전과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형 CCTV 시스템, 드론(Drone) 등 최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온산공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능형 사업장으로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S-imoms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S-imoms는 에쓰오일의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S-imoms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쓰오일 공장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했고, 작업 효율성 극대화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에쓰오일은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업무 혁신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파이क्स 피크 힐클라임’ 출전

아이오닉5N, 양산형 전기차 부문 신기록

안정성 등 전기차 기술력 입증

현대자동차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안방에서 전기차 기술력을 과시했다.

현대자동차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파이क्स 피크 힐클라임’에 출전해 양산형 전기차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파이क्स 피크 힐클라임은 1916년 처음 시작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로 로키산맥의 파이क्स 피크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차량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유서 깊은 대회다.

해발 2862m에서 경기를 시작해

4302m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총 길이 19.99km의 오르막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56개의 굴곡진 코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차량의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완주할 수 있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을 활용한 차량으로 양산형 전기차 SUV·크로스오버 및 비개조 부문에 참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N 브랜드의 기술력을 알리고 이를 통한 기술 개발로 고객들이 원하는 차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엔컴퍼니, ‘드라이브’ 전시관 운영

부산모빌리티쇼 참가… 현장 소통

한국엔컴퍼니가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 전시관을 통해 고객 소통을 강화한다.

한국엔컴퍼니는 오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되는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라이브와 모터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가 협업해 제작했던 티셔츠 4종을 비롯해 유명 웹툰 작가 ‘기안 84’와의 협업 작품과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 25인의 작품을 대규모로 선보인 전시회 ‘하이퍼컬렉션’ 작품을 전시한다.

또 한국엔컴퍼니그룹이 보유한 타이



한국엔컴퍼니 ‘2024 부산모빌리티쇼’ 전시관 조감도

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에서 모빌리티 기술을 구현하는 고성능 슈퍼카 ‘포드 GT’, ‘부가티 시론’ 차량도 전시한다.

한국엔컴퍼니가 참여하는 ‘2024 부산모빌리티쇼’는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인기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 및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 슈퍼카, 클래식 등 다채로운 모빌리티 관련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